지방
자치단체장이
바라본 하천

River & Culture

# 개발에서 환경으로... 지속가능한 개발로...

이 명 박 | 서울특별시시장

2005년 10월 1일. 청계천에 맑은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콘크리트에 짓눌렸던 오랜 세월의 어둠을 용서하면서, 맑게 굽이치고 유유히 흐르고 있다.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고 물장구를 치는 아이들도 있었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청계천의 역사를 설명하는 아저씨도 있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많은 이들이 청계천을 찾아 기뻐했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 내일의 희망을 말하기 시작했다. 환경 복원을 목표로 시작한 청계천은 이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의미도 갖게 되었다.

청계천이 성공하면서 하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국내외적으로 하천 복원의 붐이 일어나고 있다. 자연은 정직하다. 학대를 받으면 화를 낼 줄도 알지만, 사랑을 받으면 보답도 할 줄 안다. 서울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하천들이 복원되면 지구생태계 전체는 그만큼 건강해질 것이며,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는 줄어들 것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조그마한 하천들을 일일이 복원하여 지구공동체가 밝은 앞날을 열어가는 데 적극 동참할 것이다.

## 개발에서 환경으로

21세기를 시작하면서 세계는 변화를 갈구하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누구나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사회문화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으로 빠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 변화의 바람은 도시경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금 세계의 여러 도시들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터전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1992년 '리우환경정상회의' 이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고, 도시경영을 환경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시도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보스톤 시는 '빅딕(Big Dig) 프로젝트'를 통해 고가도로를 걷어내고 지하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그리고 지상은 숲과 공원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서울시도 그런 변화의 가능성을 환경에서부터 찾았다. 도시경영의 철학을 개발에서 환경으로 바꾼 것이다. 그래서 녹지를 늘리고, 숲을 만들고, 하천을 복원하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에 힘써 왔고,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서울시가 시민들과 '그린트러스트운동'을 통해 조성한 뚝섬의 '서울 숲'은 자연의 숲이다. 아름드리나무가 우거지고 시냇물이 흐르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휴일을 즐기고 있다. 런던에 '하이드파크'가 있고, 뉴욕에 '센트럴파크'가 있듯이, '서울 숲'은 서울이 세계일류의 친환경도시임을 증명하고 있다.

청계천 복원은 개발에서 환경으로 가는 패러다임 전환을 극적으로 상징하는 사업이다. 개발시대에 콘크리트로 덮었던 하천을 생명의 시대에 맞게 완전히 새로운 하천으로 창조한 것이다. 그런 점에 하천의 기능을

보수하는 준천이 아니라, 새로운 하천을 여는 개천(開川)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하천 관리는 인류문명의 시작부터 있어왔고, 국가경영의 중추적인 과제였다. 산과 물을 잘 다스리는 치산치수(治山治水)가 원만해야 살아갈 수 있었고, 이에 능한 이들이 지배계층을 이뤘다. 예전에는 주로 하천의 물을 다스리고 이용하는 일에 치중되어 왔다. 다시 말해, 치수(治水)와 이수(利水)의 기능을 중시하면서, 하천을 곧게 만들어(直江化) 홍수 조절의 능력을 극대화하는데 힘써 왔다. 조선조의 영조대왕이 했던 준천도 본질적으로 이러한 치수(治水)의 목적으로 벗어나지 않았다.

산업사회가 되면서 도심의 하천들은 오폐수로 가득했고, 불결한 장소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서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천을 복개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하천을 콘크리트로 덮어서 상부는 도로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하수를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외견상으로는 산뜻해 보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발을 우선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잃게 되었다. 하천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여울과 소가 없어져 생물들이 서식할 공간이 사라진 것이다. 지구생태계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아마존 열대우림(tropical rain forest)의 파괴는 그 자체로 그치지 않는다. 대기 순환의 질서를 흩트리게 되고 온실효과를 낳아서, 허리케인과 태풍 등 이상기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구 전체가 이러할 진데, 하물며 도시 하나의 생태계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하천에서 사는 생물들이 죽고, 생태계가 파괴되면 스스로 맑아지는 정화능력을 잃게 된다. 그러니 악취가 난들 누구를 탓할 수 있겠는가! 다 사람이 저지른 업보(業報)가 아니겠는가!

## 치수(治水)에서 경수(經水)로

청계천에 가면 한강에서 온 잉어 떼를 볼 수가 있다. 물이 흐르면서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다. 하천을 따라 동서(東西)로 녹지축이 생기고 있고, 바람 길이 열려서 도심의 열섬효과를 완화시키고 있다. 청계천 주변은 시원해지고 있다. 벌써 온도가 3℃까지 내려간 곳도 있다. 생태환경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청계천은 물길을 열고 생태계를 살릴 뿐만 아니라, 옛 문화, 전통문화를 복원하고 새 문화를 심는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하천 복원이 아니다. 물을 활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생활문화를 창조한다는 점에서,

물을 다스리는 치수(治水)가 아니라 물을 경영하는 경수(經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청계천으로 서울의 앞날은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청계천의 맑은 물을 보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심성이 더 고와질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청계천의 돌다리를 디디면서 출근하는 발걸음은 가벼울 것이며, 즐겁게 시작한 하루는 생산성도 높아질 것이다. 앞으로 청계천에는 다리밟기, 연날리기 등 서울의 고전문화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또 음악과 미술이 흐르는 현대의 거리문화가 자리 잡을 것이며, 관광과 비즈니스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세계적인 기업과 금융기관이 북한, 중국의 동북3성, 시베리아 등 새로운 시장, 블루오션을 기대하면서 둥지를 트는 전진기지가 될 것이다. 청계천으로 서울은 공간구조의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변화는 지금의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번영의 단열매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하천 생태계를 살리고 연결하자

우리나라는 물이 부족한 국가다. 여름철에 강우가 집중되고 있고, 유역면적이 적어 빗물을 낭비하고 있다. 지형 경사가 급해 유입수가 하천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층이 늘고 있다. 또한 지하철, 고층빌딩 등 지하공간의 개발로 지하수가 다량으로 유출되어 낭비되고 있다. 합류식 하수 처리로 말미암아 하천수가 하류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유량이 감소하고 하천이 건천(乾川)이 되고 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 그렇듯이 물이 부족하면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없다. 이제 물을 아끼고, 물을 잘 관리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필수과제가 되고 있다.

충분한 유량을 확보하고 물 부족을 해소하려면, 하천부터 잘 관리하는 것이 좋다. 하천은 흐르는 물을 모으게 하고, 자연 정화(淨化)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하게도 최근에 하천 환경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도시하천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이 실시되고 있고, 치수(治水)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하천에 생명을 불어넣으려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에는 국가하천인 한강, 중랑천, 안양천 등 3개 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으로는 청계천, 성북천, 홍제천, 정릉천 등 33개의 하천이 있다.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하천은 거대한 하수구로 전락했고,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하천다운 하천이 없었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악취 나는 도시하천을 살리려는 노력이 여러 자치구에서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다. 하천의 생태계를 살리고, 그 주변 지역의 경제적 가치가 높이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에 소재하는 모든 하천을 지속적으로 복원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총 4,800억 원을 투입하여 2012년까지 친환경적 하천으로 만들 것이다. 하천의 수질 개선은 물론이고, 하천이 본래의 기능을 되찾도록 유지용수의 확보에도 힘쓸 것이다.

도시하천은 생태계의 통로 역할을 한다. 이들이 되살아나면 전국의 산과 강을 잇는 생태계가 활기를 띨 것이며, 쾌적하고 시원한 국토가 될 것이다. 전국의 산하(山河)가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되찾으면 인구 분산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하천에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환경을 유지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며, 시민들도 하천을 가꾸고 사랑하는 자율적인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하천협회〉는 그간 하천 복원과 하천환경의 보전, 쾌적한 수변 공간을 위한 정책수립에 크게 기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도 하천에 생명을 불어넣는 시민문화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무궁한 발전을 이루기를 기원한다.